

미륵사 중문, 디지털 실감콘텐츠

익산시,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체험서비스... 복원과정·사계절 영상 콘텐츠 제공

익산시가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복원과정과 사계절을 최첨단 장비를 통해 선보인다.



시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지난 17일 출범일을 기념해 미륵사 중문(中門) 디지털 복원콘텐츠 체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건립됐다.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 승방, 강당으로 형성된 사찰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3탑 3금당의 독특한 형식을 보이는 동양 최대의 사찰이다.

익산 미륵사지의 디지털 복원은 지난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

제로 채택됐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지난해 미륵사 중문을 증강현실기술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를 복원했다. 스마트글래스와 태블릿 PC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연해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디지털 복원콘텐츠를 통해 구현된 미륵사 중문은 2008년부터 진행된 고증연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 미륵사의 동·서원

중문은 단층 중문 중문은 2층 규모로 평공포와 하임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증강현실로 구현된 미륵사 중문을 체험기기를 통해 관람하며, 직접 중문을 부재별로 해체해 보고 전시 해설사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체험기의 카메라를 이용하면 복원된 중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이외에도 미륵사의 건축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미륵사의 사계절을 감상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체험은 하루에 오전 1회, 오후 2회 등 3회를 연중 운영하며, 회차별로 현장 예약을 받아 스마트글래스 1팀, 태블릿PC 10팀을 운영한다.

스마트글래스 체험은 콘텐츠 및 기기조작 교육을 받고 가이드와 함께 이동해 가상으로 복원된 중문을 관람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왕궁면 생태계 복원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중국 칭다오(청도)시 현지 답사에 나섰다.

생태복원 선진지 견학

정현을 익산시장, 훼손 생태계 복원 위해 칭다오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왕궁면 생태계 복원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중국 칭다오(청도)시 현지 답사에 나섰다. 녹색정원도시 건설을 위한 확실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6~17일 도심속 생태환경 조성과 도시 녹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시를 방문했다.

중국의 해안도시 칭다오는 2021년 제14차 5개년 임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훼손 구역을 활용한 도심속 삼지공원과 빗물 재활용이 가능한 스펀지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 녹색 도시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왕궁정착농원 일대가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왕궁정착농원 축사를 매입하는 등 생태복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환경훼손에 대한 생태복원을 통해 녹색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과거 공업부지였던 폐허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양질의 녹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생태 복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담당자와 면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 시장은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 사업과 칭다오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며 체계적인 복원의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익산시는 왕궁 생태복원 사업에 영국 '에넬프로젝트'를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에넬 프로젝트는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생태 복원한 대형 사업으로 전세계를 대표하는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랜시간 인근 악취와 수질오염의 근원으로 지목된 왕궁정착농원 일원 생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했다.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홍보 총력

익산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발벗고 나섰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일산 메가주(MEGA ZOO) 케이펫케어'에 참가했다.

메가주 케이펫케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펫 산업 박람회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홍보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다. 익산시는 '에니웨이케이션 익산'이라는 주제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자유 도시의 면모를 알렸다.

교도소 세트장과 다송무지개마을,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관광영역을 비롯 체험과 축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도소 세트장 사진부스 운영과 죄수복 의상 체험, 톨렛 이벤트 등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내서 배포를 통해 알찬 관광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10월 12~13일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익산 동물보호문화축제'와 '제18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를 소개하고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합영열에 소재한 (주)하림푸드에서 프리미엄 제품 '더리얼' 사료, 간식 등 샘플 200개를 후원받아 지역기업 홍보와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청사진 그린다

연면적 2774㎡, 지상 3층 규모... 교육·긴급돌봄·특화사업장 등 조성

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착수했고 올해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결과 (주)인에이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월성동 324-1번지 일원에 연면적 2,774㎡,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된 설계안의 건축계획 개념은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사람의 힘

이 닿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계에 담을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지원·사무관리 △긴급돌봄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장애인비장애인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된다.

교육영역에는 교실과 특수 교육실 등이 위치하고 지원영역에는 식당 강당, 안정실, 보건실, 사무관리영역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장과 현장 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으로 구성된다.

익산시는 전문 기관 종사자 장애인, 보호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익산에서 단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4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59.07.02.~2006.07.0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취업 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하며 임금은 시급 9,880원(2024년 최저임금)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참여자로 선발 후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 개최

군산시가 2024 인구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의 육아'를 함께하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아빠 육아의 참여 필요성과 성 평등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아빠의 육아 사진과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1명(20만원) △장려 10명(각 5만원)이며, 접수된 작품들은 최종 12점을 선정해 오는 7월 6일 시상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고액·고질 체납 차량 인도명령 실시

군산시가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 처분을 진행한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에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9,000만원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5월에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하였고,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강제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다.

군산시는 특히,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